

■ 공선협, 이승만~김대중 前대통령 평가 워크숍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이끈 창업자”
“박정희, 先 경제건설 後 민주주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올해 대선 후보들의 검증에 사용할 모델을 전직 대통령들에게 먼저 적용해보는 평가 워크숍을 열었다. 평가 대상은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5명의 전직 대통령이며 품성·도덕성·건강·수행능력·가치관·전문지식 등 6개 항목의 '다이하드 모델' 방식에 따라 34가지 소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워크숍에서 이인수 유남순이산박사기념관 이사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끈 ‘창업자’라며 “그는 북한군의 남침을 물리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 전략에 따라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인 경제건설을 이룩해냈다. 개인적 측면에서도 성실함·책임감·정정성

등을 두루 갖춘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민주화와 전 세계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2중의 전환기’에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천, 공세적 북방정책,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3대 업적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을 통해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부정부패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며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켰다”며 “특히 일관된 민주화 전략에 따라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인 경제건설을 이룩해냈다. 개인적 측면에서도 성실함·책임감·정정성

노대통령 61번째 ‘조용한 생일’

친척들과 조찬... 별도 행사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16일(음력 8월6일) 만 61번째이자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생일을 특별한 행사 없이 보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평소 휴일과 마찬가지로 권양숙 여사와 함께 관저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아침에 가까운 친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내내 관

저에서 휴식을 취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까운 친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생일이 노 대통령이 임기 중 청와대에서 맞은 마지막 생일이기 때문에 14일 저녁에는 국무위원과의 만찬, 15일에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번양군 파문’과 정운재 전 의전비서관 문제 등 최근 불거진 측근 의혹 등으로 인해 모두 취소됐다. /연합뉴스

DJ, 미국 방문차 오늘 출국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내셔널프레스클럽(NPC) 등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17일 출국한다. 김 전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2005년 4월 미국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5개월만이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양성철 전 주미대사, 박지원 비서실장, 류성영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이 수행한다. 김 전 대통령은 12박13일간의 방미 기

간 중 워싱턴 NPC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사랑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는 등 두 차례의 연설과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피력한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클린턴 전 대통령, 쉐 본데비 노르웨이 전 총리와 폴린 파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헨리 키신저 등 전직 미 국무장관 3명을 차례로 만나 남북 관계 및 한미 우호관계 증진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연합뉴스

2012 엑스포 여수로 ‘제2차 국제 심포지엄’ 성료

엑스포 유치 가능성 재확인

개최지 결정전 마지막 국제행사 총력... “주제 시의적절” 긍정적 반응

16일 마무리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제2차 국제 심포지엄’은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된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불과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열린 마지막 국제행사란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총력을 기울였다.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의 15일 여수 현지 방문이 무산됐지만, 한국이 제시한 박람회 주제인 ‘지구 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참가자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돌보인 것은 역시 2012 여수엑스포의 주제 분야였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 박사도 ‘인류발전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

수엑스포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었다. 더욱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해 인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여수엑스포가 해양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요소라는 지적이다. 여수엑스포가 인류 공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으로써 모로코, 폴란드와 확실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매년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례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투발루의 타바우 데이 부총리는 “투발루는 5~10년 전부터 해수면이 상승했고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연안이 침식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는 “2m 높이밖에 안 되는 투발루가 가라앉지 않도록 한국도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지켜본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총평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섬 국가를 비롯한 여러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와 전남도·여수시가 보여준 여수엑스포 개최의지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BIE 대표단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으며,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BIE 대표단을 그들별로 면담하면서 한국 정부의 유치의지를 보여주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지난 12일 서울 경희궁에서 BIE(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 만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속한 비... BIE대표단 여수 방문 무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려했는데...” 여수 세계박람회 2차 국제 심포지엄 행사의 하나로 진행될 예정이던 지난 15일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2백여 명의 여수시 방문이 비 때문에 취소돼 현지주민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당초 BIE대표단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오전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여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붓는 갑작스러운 호우 때문에 전세기가 뜨지 못하면서 이들의 여수 방문이 취소됐다. BIE 대표단은 날씨가 순조로웠을 경우 당초 여수공항에 도착해 관광제철과 순천만을 둘러 본 뒤 여수로 이동해 신항 2부두에서 박람회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동도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참석할 예

정이었다. 여수 시민들은 지난 4월 실시 때의 열기에 버금가는 환영행사를 통해 2012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계획이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전 공무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 준비를 해온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기구 대표단의 여수 방문 취소 소식을 듣고 허탈해 하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말의 성찬을 경계해야”



박치경
정정부 차장

“스스로의 칭찬이 가장 무섭다.” 1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제2차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박준영 전남지사는 “사회자찬을 경계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17일 전남미 국가에 대한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출국하는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몇 사람이 특정국가의 지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떠드는 바람에 모로코가 역공을 퍼 해당 국가들이 (모로코에) 넘어가 버렸다”고 개탄했다.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엑스포 유치 관계자들이 스스로 공을 자랑하며 별 생각없이 내뱉은 말들이 오히려 화가 됐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하이에 아깝게 개최권을 내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험에서도 여수는 빼어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상하이는 뛰어난 개최 여건과 중국의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제3세계에 대한 막강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소리없이 엑스포 유치작업을 벌여 개가를 올렸다. 반면 우리는 당시 앞서가던 경제력과 88올림픽, 2002 월드컵 유치 경험을 과신했다가 쓴 잔을 마셨다. 2010 엑스포 개최지 투표 직전까지 스스로 우세라며 우쭐했다가 허를 찔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세계박람회 기구(BIE) 회원국들의 달콤한 말의 ‘성찬’(盛宴)도 지금 우리에게겐 독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012 여수엑스포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인류의 공동번영에 매우 유익하다고 평했다. 여기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심포지엄의 격을 높여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정부·전남도·여수시 등의 적극적인 개최 의지는 각국 대표단의 호감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모로코 대표도 “행사의 규모와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고 부러워할 정도였다는 전언이다. 심포지엄 기간 내내 참가자들은 한국이 2012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획득하는 데 가장 근접했다는 토를 별로 달지 않았다는 자평도 뒤따랐다. 이제 조금만 더 다지면 엑스포 개최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설부터 낙관론도 나왔다. 그러나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는 11월 27일 2012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야속’일 뿐이다. BIE회원국 대표의 발언은 대부분 외교적 ‘수사’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이 더 정확하다. 개최지 결정 투표가 끝나고 “여수 코리아!”가 울려 퍼질 때 삼폐인을 터뜨려도 전혀 늦지 않다. /uni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Rohascow (로하스코)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fish oil, vitamins, and health supplements. The ad includes a list of products, their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